

MCM, 김창옥 개인전 전면에… 키워드 ‘장인정신·위로’

현대 패션-동양 전통공예에 결합
김창옥 작가 ‘울다’ 등 신작 공개
김해리 대표 “깊이있는 경험 제공”

“작업을 하면서 복잡한 생각이 비워지고 필요한 생각만 남았다. 작업 과정은 위로, 작품은 위로가 지나간 자리에 남은 흔적이다”.

끊임없는 잡념과 불안으로 머릿속이 복잡한 현대인들에게 ‘소통 전문가’ 김창옥이 말 대신 옷칠로 비움의 위로를 전한다.

강연가 김창옥의 첫 개인전을 전면에 내세운 MCM이 패션과 동양 전통 공예를 결합한 색다른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글로벌 미술주간 행사 ‘프리즈워크 서울’의 공식 파트너로 참여하는 MCM은 치열한 아트 마케팅 경쟁 속에서 ‘장인정신’과 ‘위로’라는 키워드를 던졌다. 김창옥의 작가 데뷔전을 함께하며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오프라인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MCM은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 MCM HAUS에서 ‘MCM X 김창옥, 패션과 예술의 만남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창옥의 첫 미술 개인전 ‘김창옥: 위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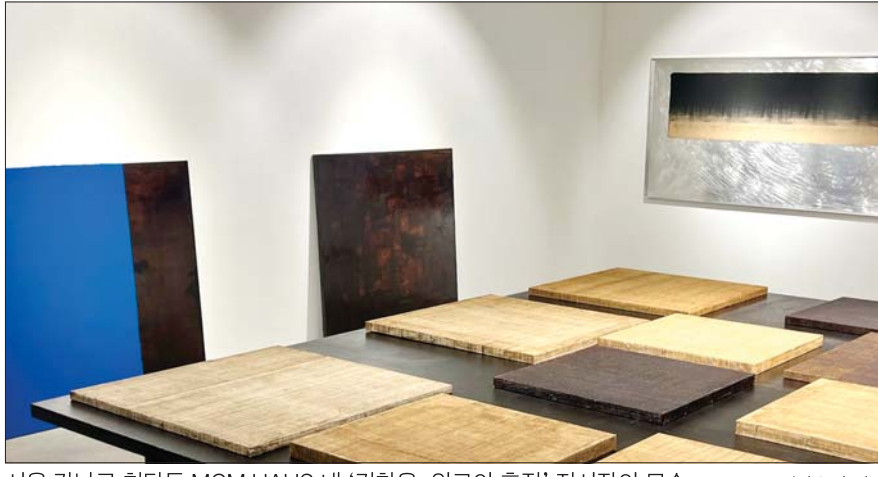


2일 MCM HAUS 전시실에서 작품 설명을 하고 있는 김창옥 작가(오른쪽)와 김해리 MCM 대표(왼쪽). /MCM

흔적’ 개최를 공식 발표했다. 해당 전시는 오는 3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강남구 MCHAUS에서 열린다.

◆옷칠 작업이 준 ‘단생각’의 위로

20여 년간 강연가로 활동하며 ‘말’로 대중의 마음을 어루만져온 김창옥은 제주도 작업실에서 지난 6년간 옷칠 작업에 몰두해왔다. 성악을 전공한 그가 붓과 옷 수액을 들게 된 것은 ‘생존과 치유’ 때문이었다. 김창옥은 “강사님은 어디서 위로받느냐”는 질문이 작업의 시작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은 잘 풀렸지만 내면은 건강



서울 강남구 청담동 MCM HAUS 내 ‘김창옥: 위로의 흔적’ 전시장의 모습. /김수정 기자

하지 않음을 느꼈고 목마른 동물이 우물을 찾듯 작업실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왜 옷이냐’는 질문에 그는 “옷 작업은 단순하고 노동집약적”이라며 “칠하고 다듬는 과정에 집중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근심과 복잡한 생각이 비워졌다”고 했다. “옷칠을 하면서 생각이 단(短)해졌다”며 자신의 작품 세계를 ‘단생각’이라고 정의했다.

옷칠은 한국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삼국에서 수천 년간 발전해 온 대표적인 전통 공예 기술이다. 한국에서는 전복 껍데기로 장식한 나전칠기 형식의 옷 공예가 발전해왔다. 김창옥은 전통 나전칠기

의 화려함 대신 알루미늄 판재와 옷 수액만을 활용해 옷 자체의 깊은 빛깔을 연출했다. 그는 옷을 덧바르고 기다리는 과정의 반복, 선 하나를 그을 때 전신을 집중해야 하는 긴장 속에서 잡념이 사라지는 최고의 위로를 받았으며 작업 과정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신작 ‘울다’와 ‘선 없는 선’도 공개한다. 김창옥은 “스승인 전영복 칠예가로부터 기술을 배우면서 ‘나는 칠쟁이나 작가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건강한 내가 되고 싶다’는 확신을 얻었다” 전했다. 그러면서 “수없이 덧칠해 옷칠 고유의 깊은 빛깔을 완성하듯, 이번 전시

는 ‘당신의 빛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건네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MCM, ‘브랜드 DNA’ 판매하는 공간으로

MCM은 옷을 현대적 추상 미술로 승화시킨 김창옥과 손잡으며 브랜드 고유의 글로벌 헤리티지와 장인정신을 결합했다. 이날 현장에서 김해리 MCM 대표는 김창옥의 순수한 열정과 진정성, 희생이 담긴 옷 작업을 접하고 먼저 협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단순히 상품만 소유하는 시대를 지나 브랜드의 목표와 가치를 확인하는 시대”라며 “유명 아티스트를 활용한 화제성 마케팅을 넘어, MCM의 유산과 어울리는 원석 같은 작가를 발굴해 깊이 있는 경험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독일 본사 디렉터 역시 김창옥이 선보인 옷칠의 강렬한 물성과 독창적인 작품 세계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김창옥의 작품과 MCM의 상품 카테고리리를 연계할 계획도 언급했다. 김창옥 역시 “MCM과의 협업을 염두에 두고 다음 작업을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정 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metro

SK바이오팜, AI 컴퓨팅 인프라 확보… ‘TR-AX’ 집중 활용

엔비디아 AI 가속기 ‘B200’ 128장 도입
이동훈 사장 “연구개발 속도·효율 개선”

SK바이오팜이 엔비디아(NVIDIA)의 블랙웰(Blackwell) 아키텍처 기반 인공지능(AI) 가속기 ‘B200’ 128장을 도입해 대규모 자체 AI 컴퓨팅 인프라를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SK바이오팜은 이를 기반으로 바이오-헬스케어 특화 AI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신약개발 전 과정의 혁신과 신규 사업 기회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하는 B200 128장의 연산 성능은 FP8 기준 초당 576페타플롭스(PFLOPS), 약 0.58엑사플롭스에 달한다. SK바이

오팜은 대규모 연산 자원을 자체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연구 목적과 데이터 특성에 최적화된 AI 모델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도입은 SK텔레콤이 구축한 국내 최초 B200 기반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해인’을 통해 이뤄졌다. SK바이오팜은 회사의 AX 성장 전략에 따라 GPUaaS를 활용해 필요한 연산 자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주요 AI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SK바이오팜은 이번 AI 인프라를 중개 연구의 AI 전환을 의미하는 ‘TR-AX(Translational Research-AI Transformation)’에 집중 활용할 계획이다.

TR-AX는 전임상 및 초기 임상 단계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SK바이오팜의 핵심 연구 역량이다. SK바이오팜은 자체 확보한 특허 파운데이션 모델을 실제 연구 과제에 적용해 중개연구를 비롯해 질환·타깃·화합물 전반에 걸친 연구 역량을 한층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R&D뿐 아니라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용 거대언어모델(LLM)을 구축해 업무 생산성과 의사결정 효율을 높이고, 독자적인 AI 활용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데이터 보안과 거버넌스도 강화한다.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민감한 연구 데이터를 자체 통제가 가능한 인프라에서 운용해 보안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향후 강화될

관련 규제와 컴플라이언스 요구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SK바이오팜은 이번 투자를 내부 연구 역량 강화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은 “대규모 자체 AI 인프라는 미래 신약개발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기반이라는 판단 아래 선제적으로 투자를 결정했다”며 “글로벌 수준의 B200 인프라를 기반으로 신약 초기 연구개발의 핵심 역량인 TR-AX를 한층 강화하고, 신약개발 전 과정에서 AI 활용을 극대화해 연구개발의 속도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le@

김영주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보건산업진흥원 이사 활동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이화여대 의과대학 산부인과 김영주 교수(사진)가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비상근이사로 임명됐다고 2일 밝혔다.

김영주 교수는 의약바이오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문 위원 및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김영주 교수는 “국내 보건의료 및 바이오 헬스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중추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이사로 활동하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현장의 풍부한 임상 및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바이오 분야의 실용성 있는 정책 지원과 산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s23@



형지글로벌, ‘까스텔바작’ 앞세워 유럽시장 재진출

프로메코 파트너십 MOU 체결

형지글로벌이 프랑스 출신 ‘까스텔바작’을 앞세워 유럽 시장 재진출에 나선다.

형지글로벌은 지난 1일 인천 송도 형지글로벌패션복합센터에서 유럽 제조·유통 전문 기업 ‘프로메코’와 까스텔바작의 유럽 라이선스 및 통합 유통 사업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준호 형지글로벌 대표이사과 카림 레드잘 프로메코 대표가 참석했다. 형지글로벌은 이번 협약이 최병오 형지그룹 회장이 지난 6월 정부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이탈리아를 방문하며 쌓은 현지 네트워크가 이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디자이너 브랜드로 출발해 지난 2016년 형지에 인수된 까스텔바작이



지난 1일 송도 형지글로벌패션복합센터에서 열린 MOU 체결식에서 최준호 형지글로벌 대표이사(오른쪽)와 카림 레드잘 프로메코 대표(왼쪽)의 모습. /형지글로벌

출발지인 유럽으로 다시 진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형지글로벌은 프로메코와 유럽 전역의 상표 사용 및 통합 유통 권한을 부여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추진하고 현지 맞춤형 생산을 본격화한다. 양사는 패션 의류·잡

화를 비롯해 홈 텍스타일, 리빙, 홈 프래그런스, 테크웨어 등 패션 제품의 유통 및 판매도 병행한다.

카림 레드잘 대표는 방한 기간 도곡직영점과 주요 백화점을 둘러보며 실무 점검을 다졌다. 카림 레드잘 대표는 “프랑스 오리지널 브랜드의 예술성에 K패션의 감각이 더해진 까스텔바작을 유럽 유통망을 통해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최준호 대표는 “이번 협약은 까스텔바작의 브랜드 헤리티지에 K-패션의 기획·경영 역량을 결합해 유럽 본토 시장에 성공적으로 재입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상표 수출을 넘어 현지 맞춤형 상품 기획과 글로벌 유통망 확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성공 모델을 입증해 보이겠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덴트릭스 크러쉬 40주년 한정판 /동국제약

동국제약
덴트릭스 크러쉬 한정판

동국제약이 구취관리 브랜드 ‘덴트릭스 크러쉬’에서 버블보블 한정판을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버블보블 캐릭터를 접목한 디자인으로 소장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브랜드 경험을 제공한다.

이번 한정판은 덴트릭스 크러쉬 농축치약, 덴트릭스 크러쉬 민트볼 등으로 구성됐다.

이와함께 덴트릭스 크러쉬 칫솔, 미니 치실 등도 선보인다. 농축치약, 칫솔, 미니치실을 담은 ‘여행용 양치세트’는 버블보블 파우치를 함께 증정한다. /이청하 기자

정식품
그린비아 기프트세트 2종

오리지널 1등 두유 베지밀 및 국내 최초 특수리용유도식품 그린비아를 생산·판매하는 정식품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그린비아 기프트세트’ 2종을 선보인다.

이번 기프트세트는 ‘그린비아 영양 케어’로 구성된 1호와 ‘그린비아 당 케어’로 구성된 2호 등 총 2종으로 마련됐다.

‘그린비아 기프트세트 1호’는 ‘그린비아 영양 케어 구수한맛’과 ‘그린비아 영양 케어 바나나맛’을 각각 7개씩 담았다. ‘

‘그린비아 기프트세트 2호’는 ‘그린비아 당 케어 곡물맛’ 7개와 ‘그린비아 당 케어 호두맛’ 7개로 구성했다. /신원선 기자